

■ 2017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연구생 선발 심의 총평

○ 사업유형 : 2017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 심의일시 및 장소

- (사전검토) 2017.4.12(수) ~ 4.16(일)(5일간) / 재택심의
- (1차 서류심의) 2017.4.17(월) ~ 4.20(목)(4일간)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용공간
- (2차 인터뷰심의) 2017.4.24(월) ~ 4.27(목)(4일간)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용공간

1. 지원심의 과정

- 2017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과정 공모에는 총 326명이 지원신청하였으며 지원심의는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심의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 5개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오페라) 심의위원 19명에게는 326건의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사전에 발송하였고, 심의위원별 개별 평가에 따라 채점된 점수의 평균 중 고득점자 90명을 2차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 2차 인터뷰 심사에서는 심의대상자 90명 중 불참자 1명(문학)을 제외한 89명이 참석했다.
- 창작(기획)역량, 발전가능성, 연구 및 창작계획과 아카데미 과정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발자 65명을 선정하였다.

2. 지원심의 총평

○ 문학

<서류 심의>

2017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의 심사는 2012년 이후에 등단한 시인과 소설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심의를 하였으며, 지원자격 적합 여부·문학적 주제의식·제출 작품의 완성도·등단 후 활동 양상 및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하였다.

시 분야의 경우 과감하고 야심찬 새로운 발성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려는 의지와 발랄함이 돋보였다. 물론 이러한 도전이 모두 성공적으로 보인 것은 아니다. 의도와 작위성을 넘어서 자유롭고 선명한 이미지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그런 의미에서 몇몇 지원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실험적 언어 구성은 새롭게 말하기, 새롭게 보여주기, 새롭게 배치하기의 전 영역에서 작동되고 있어서 긍정적 양상으로 생각되었다. 지원과 교육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발전된 작품의 산출이 기대된다.

소설 분야의 경우 ‘차세대 육성작가’를 찾고자 하는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향후의 문학적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서사를 풀어내고 조직화하는 힘에 주목했다. 삶의 다층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서사적 구성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원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삶의 농담과 같은 여백들, 정체성의 문제, 젊은 세대들의 문학적 초상, 텅 빈 목소리 다시 쓰기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깊게 고찰하고자 하는 문학적 열정들과 만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동 청소년 문학에서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올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자들의 작품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전체적으로 현대사회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형성해 가면서 자신의 문학적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선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심한 심사과정을 거쳐 시 10명, 소설 10명의 작가들을 인터뷰 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했음을 밝힌다.

<인터뷰심의>

시 부문의 경우 지원자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문학의 성격과 고유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지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미리 계획한 시적 방법론에 의해서 작품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만의 시적 발상과 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대한 반성적 의식으로 작품 창작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공간, 이야기성, 춤, 대화성, 종교성 등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는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소설 분야의 경우 흥미로운 내용과 잘 짜여진 서사적 가능성을 함께 만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었다. 현 시대를 조망하고자 하는 서사적 가능성과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모색은 향후 좋은 작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유의지와 역설, 운명의 예측불가능성, 공간의 세대론적 표정, 덕후의 생태학, 화해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매체전환적 상상력 등 다양한 주제들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문학적 열정들과 만날 수 있었다.

세심하게 진행된 토의 과정을 거쳐 15명의 지원 작가를 선정했다. 2017년 문학예술 창작 아카데미 문학 분야에 지원한 모든 작가들의 건필을 기원한다.

심의위원 김동식, 윤순례, 이수명

○ 시각예술

- 창작(작가) 분야

동시대 젊은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들과 그들의 다양한 작업 경향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예년보다 지원자가 많았고, 장르적으로 회화, 퍼포먼스, 설치 등 스펙트럼이 넓었으며 내용적으로는 사회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보여 고무적이었다.

<서류 심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원칙적인 심사의 기준을 점검했다. 기준들로는 신진 작가로서의 성장가능성, 실험성, 독창성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실험성이라 함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창작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매체 및 관념들에 대한 접근의 진취성과 구현방식 상의 차별성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구성하는 물리적 방법론에 사유가 어떻게 긴밀하게 침투하고 용해되었는가 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뚜렷하게 실험적인 세계를 펼친다고 할 만한 지원자가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자신만의 방법보다는 기존에 주목받았거나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 이미 관습의 일부를 형성한 어법을 답습하는 듯한 접근들이 적지 않아 이 점이 아쉬웠다. 작가로서,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세계와 역사, 사회와 자아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라도 선명한 태도가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진 작가라면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적으로 매력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더라도 유행에 경사된 듯 하다 판단된 경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이다.

이외 몇 가지 점들이 심의에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장르 간의 안배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장르 안에서 상대적으로 언어적 완성도나 그간의 활약 등에서 돋보이는 작가들을 선정하였다. 회화 장르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참조들이 매우 두터운 영역이다. 그러니만큼 매체 자체에 대한 회화 언어에 사유의 세계를 침투시키는 심지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퍼포먼스의 경우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의 긴밀한 상관성에 비중을 두고 심의하였다. 시각적으로 구현되었을 때, 작품의 콘셉트나 의도가 구체적이며 설득력 있게 구현되었는가가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인터뷰 심의>

참여한 작가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진지하고 훌륭하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서 심사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대부분의 작가 분들이 개인전, 다수의 단체전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자신의 작업의 언어를 구축해나고 있어 그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사위원들 사이에 고민이 생겼지만, 작가 활동의 변화의 지점에 있어 아카데미가 여러모로

응원이 될 수 있는 경우와 함께, 작업방향의 전환점에 있는 작가들 등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물론 작가들 중에 변화의 시점에서 본 아카데미 과정이 절실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변화의 시점은 다시 초기로 돌아가 원점에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개인의 예술 언어가 구축되어 있는 가운데, 본 아카데미에서 작업 방향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작업의 언어를 좀 더 밀도 있게 다질 수 있는 경우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작업 활동의 경력과 작품의 우수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다른 창작지원 프로그램에 유사 연구나 프로젝트로 기 선정되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본 아카데미 과정과 중복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 프로젝트의 지원이 없이 올해의 활동을 계획하는 작가를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 기획(큐레이터) 분야

<서류 심의>

연구와 전시기획에 있어서 실험성과 독창성, 발전가능성에 심의의 주안점을 두었다. 몇몇 지원자는 연구와 기획에 있어 설득력 있는 방법론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에게서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이나 예술계의 움직임들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이를 전시 형태로 풀어가고자 하는 열정과 방법론이 목격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반면, 많은 기존의 큐레이토리얼 방법론을 다소 기계적으로 수용한 듯한 기획안들도 있었다. 특히 신진 큐레이터들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자문과 성찰이 있어야만 한다. 주제가 의미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와 이에 대한 이해가 모호해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개인의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창작지원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지점은 개인 연구의 심화와 더불어 연구 내용의 공유, 즉 함께 자신의 기획주제와 고민을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또 한 번의 성장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인터뷰 심의>

이번 인터뷰 심사에 참여한 큐레이터 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연구를 심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아카데미에 지원을 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관심, 연구주제 및 입장과 태도를 가진 분들로 구성해 다양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과정을 통해 심화하고자 하는 연구주제가 겹치는 지원자들이 다수 있어

그 중에서도 분명한 연구 목적과 방향을 가진 경우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심의위원 심상용, 이주은, 이준, 차승주, 홍보라

○ 연극

연극 분야 지원자는 지난 해와 비교하여, 연출분야 지원자는 늘었고, 극작분야는 줄었다. 전체적으로 공연을 올린 이력이나 새로운 작품에 대한 계획들이 미진했다.

무엇보다 시대를 반영한 작품, 주제의식의 명료함이 아쉬웠다.

소극장중심의 서민극, 가족극 형태의 습작경험에 머물고 있거나, 진부한 서사, 평범한 문제 의식을 가진 작품들이 대다수였고, 젊은 창작자들에게 기대하는 도전정신, 창의성, 실험성 등을 갖춘 지원자들이 적었다.

지나치게 대중적이며 상업적인 코드, 혹은 쇼비즈니스적인 관심에 그친 경우 등 전체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지원자들이 많아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 연출 분야

<서류 심의>

연출분야에 있어, 개발희망 작품에 대한 콘셉트의 신선함, 동시대적 방향성을 가진 작품에 우선하였고, 장르 안배를 고려해 신체극, 비언어극, 포스트드라마, 다원예술분야까지 포함하고자 했다. 특히 연출자로서 지속가능성, 배우구성능력, 오브제나 영상의 활용 경험치를 눈여겨보았다. 무엇보다 교육과 지원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인터뷰 심의>

올해 지원자는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작업방식을 경험한 신진연출가들이 지원하였다. 이 점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으로 본다. 우리 연극계에 필요한 다양성의 미래라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극 장르가 공존하고 발전해야 하기에 이번 심사는 이 점을 특히 감안하여 심사하였다. 또한 연출의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작품 구성안을 심의 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선발 하였다. 다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몇몇 지원자들 중에서 동시대를 바라 보는 해석의 부족을 느낀 경우도 있었다. 텍스트를 바라보는 연출의 해석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또한 중대규모의 극장에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신진연출가들을 우선하여 심사하였다. 연극은 관객의 상상력과 만나져서 무엇이든 가능하겠지만 중대극장의 연출미학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신의 연출 역량에 도전할 의지도 무척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연출의 동료 예술인과의 소통능력 또한 평가의 기준이었음을 밝힌다.

- 극작 분야

<서류 심의>

극작분야에 있어서는 기발표작의 문제의식, 극적완성도를 먼저 보았고, 개발희망 작품에 있어 소재의 신선함과 테마의 동시대성, 무대 위 표현 가능성을 고르게 갖춘 시놉시스를 선별하였다.

연출분야와 마찬가지로 극작가로서의 발전가능성, 이번 교육과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시기의 작가들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심의>

대부분의 지원자들의 장막희곡의 창작경험과 능력은 다소 부족해 보였으나 극작 아이디어의 발전가능성을 보인 지원자가 많았다. 선정기준에는 자신의 작품을 장막희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극작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사와 준비 작업이 부족한 경우 이를 심사에 반영하였다. 희곡 작가로서 동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문제의식 또한 심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였다. 시대를 바라보고 이를 작가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작품에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자를 선발하였음 밝힌다.

심의위원 고연옥, 구태환, 양정웅, 장성희

○ 무용

<서류 심의>

무용분야의 경우, 창작계획서와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작품구상에 있어 구체적인 안을 가진 경우를 고려하여 지원자 중 15명의 인터뷰대상자를 선발 하였다.

<인터뷰 심의>

인터뷰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주제선정이 모호하거나 극적 표현방법 계획이 미흡한 경우 낮은 점수를 주었다. 둘째, 지원자 간의 상대평가에 있어 작품창작을 위한 기본적인 콘셉트의 차별성 및 독창성을 고려하였다. 셋째,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수행역량을 검토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가늠하였으며, 향후 본 사업을 통한 지원자의 발전 가능성에 치중하여 채점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10명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인 심사를 통해 파악한 점은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량의 지원자가 신청했으며 계획서 작성 및 창작에 임하는 태도 등 지원자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라, 아카데미를 통한 자기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데 있어 2017년 결과물에 대한 많은 기대가 된다.

심의위원 김용철, 장인주, 조성주

○ 음악·오페라

<서류 심의>

지원자 중에서 본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취지의 방향성에 일치된 것을 놓고 서류 심의를 한 결과 오페라분야 1명, 음악분야 2명을 제외하였다. 이유는 오라토리오는 해당사항이 없고, 음악분야에 지원한 1명의 지원자는 오페라 창작을 권해볼 필요가 있다고 심사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결정하였다. 오페라는 극음악적 전개와 대본의 표현에 있어 작곡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집중하여 심의하였다. 지원자들이 대체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나 한국적인 융·복합에 있어서 이론적인 배경이 약함을 느꼈다. 특히 서양음악 작곡 지원자는 우리 전통음악의 이해를 체계적인 이론과 체험적인 접근에서 부족하여 이를 지적한다. 한편으로 국악분야의 지원자들은 작곡의 기본적인 어법이 부족함을 느꼈다. 이러한 면들은 국악분야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져 면접을 통한 심층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이번 서류 심사에서 음악지원자 중 기본어법과 교육과정이 빈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는 제외하였다.

<인터뷰 심의>

인터뷰 심의의 경우,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사업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하였다. 참가자들이 한국 작곡가로서, 미래의 창작을 위해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의 융합에 관하여 많은 고민과, 더불어 대단히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독창적인 곡을 쓰려는 노력이 크게 돋보였다. 대체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론적 배경이 지원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아카데미 수업을 통해 잘 정리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작곡가들로 판단되어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작곡가들은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의위원 이기균, 임준희, 임평용, 한상일